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GDP 4분기, 연율로는 3.3% 상승... 예상외 강한 해
- Bloomberg: 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 거의 사상 최저...18만7천건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 GDP 호조 보고서로 상승세

#### [미국 생활]

- Bloomberg: 많은 젊은 미국인들 은퇴 계획 멀다... 힘든 경제적 생활 탓
- WSJ: 올 겨울 미 난방비 싸진다... 천연가스 공급 덕분

####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중간 임대료 8개월째 하락, 신규 물량도 늘어

#### [미국 무역]

- WSJ: 트럼프 시대 접어들면 세금은 순풍, 무역은 역풍

#### [반도체]

- Bloomberg: 엔비디아·TSMC, 이번 주 AI 반도체 공급망 논의 예정
- Bloomberg: ASML,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증가하다
- Bloomberg: SK 하이닉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나간다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WSJ가 선정한 작년 미 항공사 순위
- WSJ: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애플에 이어 3조 달러 진입
- WSJ: 미 보험회사들, 주가와 수익 최고치 기록

#### [보고서]

- The Economist: 트럼프의 재선과 각국에 미칠 파급 전망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GDP Grew 3.3% Last Quarter, Capping Unexpectedly Strong Year**

#### **미 GDP 4분기, 연율로는 3.3% 상승... 예상외 강한 해**

- 인플레이가 둔화로 소비가 늘면서 작년에 놀랄만한 경제 성장의 해였다.
- 오늘 목요일 연방정부 예비치 전망에 따르면 미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간 비율로 3.3%를 기록했다. 특히 성장 엔진인 개인소비 지출은 2.8% 상승했으며 비즈니스 투자와 주택도 작년 4분기에 경제상승을 부추켰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Jobless Claims Are an Unreliable Indicator of Tight Labor Market

### 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 거의 사상 최저...18만7천건

- 미 신규 실업청구 건수가 거의 사상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다고 말할수는 없다.
- 우선 지난주 신규 청구건수는 18만7천건으로 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 그렇다고 일자리가 여전히 타이트하다고 해석할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벗어 났거나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실업수당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Poised for Another Record After GDP Report: Markets Wrap

### 미 증시, GDP 호조 보고서로 상승세

- 연준의 여전히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가 기업들의 실적 밝은 전망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미증시는 최고치를 향하고 있다.
- S&P 500 은 올초부터 계속 성장해 4,900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10년물 수익률은 3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15%로 감소했다.
- 달러는 별 변동이 없으며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인하에 대해 시간을 두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생활]

## Bloomberg: Many Younger Americans Don't See a Path to Retirement

### 많은 젊은 미국인들 은퇴 계획 멀다... 힘든 경제적 생활 탓

- 미국인들 22세부터 34세 사이의 젊은이들의 21%는 은퇴와는 거리가 멀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TIAA 연구소 설문 결과 밝혀졌다.
- 그 이유는 미국 경제 생활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신입 직원의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학자금 대출 부탁은 크고 그리고 생활비도 점점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Bloomberg 기사

**WSJ: Heating Your House Will Be Cheaper This Winter Thanks to Natural-Gas Boom****올 겨울 미 난방비 싸진다... 천연가스 공급 덕분**

- 작년 12월에 미 천연가스 생산이 최고치를 보이면서 히팅 연료가 떨어지고 있다.
- 여기다 따뜻한 기온을 보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10월 난방 시즌이 시작된 이후 거의 가격이 30%나 낮아졌다. 어제 수요일에 끝난 다음달 천연가스 인도분 선물은 2.641달러로 마감되어 1년전 보다 14% 저렴했다. 3월 선물은 2.262 달러로 거래되면서 1년전보다 42% 줄었다.

## WSJ 기사

**[주택]****Bloomberg: US Median Rents Fall for Eighth Month on Boom in New Apartments****미 주택 중간 임대료 8개월째 하락, 신규 물량도 늘어**

- 미국의 주택 중간 임대료가 8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물량 급증에다 올해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 샌프란시스코, 로스앨젤레스 등 서부 대도시가 계속 하락했지만 남부의 대도시들이 크게 하락했다. 이곳에서 다가구 주택 완공률이 32%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 Bloomberg 기사

**[미국 무역]****WSJ: Trumponomics 2.0: Less Tax Tailwind, More Trade Turmoil****트럼프 시대 접어들면 세금은 순풍, 무역은 역풍**

- 많은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바이든 보다는 미국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첫번째 임기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 강력한 보호주의 때문이다. 첫번째 임기 때 세제 개혁 때문에 그가 주창했던 보호주의가 가리워지기도 했지만 2번째 임기 때 무역 전쟁을 확대하기 원하고 있다. 6년전 시작한 무역전쟁을 확대하며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높은 새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보다도 더 강한 환경이 조성될 공산이 크다.

WSJ 기사

**[반도체]****Bloomberg: Nvidia, TSMC CEOs Meet as Global AI Chip Supply Remains Tight****엔비디아·TSMC, 이번 주 AI 반도체 공급망 논의 예정**

- 엔비디아 CEO인 Jensen Huang이 AI 반도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TSMC의 Morris Chang을 이번 주에 만난다.
- Huang은 생성형 AI 훈련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사 반도체 생산에서, TSMC가 맡은 역할이 주요 논의 내용이라 언급했다.
- A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작년에만 시장가치가 3배 이상 오른 엔비디아는, 올해 24% 이상 추가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SML's China Sales Surged Despite Secret Dutch Deal With US****ASML,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증가하다**

- ASML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을 막는 미국과 네덜란드의 합의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ASML이 다른 지역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중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합의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가 이번 달 시행되기 전에 중국에 더 많은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업 관계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장비가 첨단 장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ASML이 중국으로 수출한 장비들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Samsung Rival Taking an Early Lead in the Race for AI Memory Chips****SK 하이닉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나가다**

-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마침내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 SK 하이닉스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호황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이 기업은 고대역 메모리(HBM)와 같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다. 최신 세대인 HBM3의 지난 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SK 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 기업인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는데, TrendForce는 두 기업이 올해 세계 HBM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Microsoft is worth more than \$3 trillion. It's the second company to ever break that threshold**

#####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애플에 이어 3조 달러 진입**

- 인공지능 호황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수요일 사상 두 번째로 3조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됐다.
- 주가는 어제 수요일 오후에 대략 1.5% 가까이 상승해, 주당 4백5불을 기록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약 40% 급등한 뒤, 지금까지 7%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독으로 S&P 500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Bespoke 투자 그룹의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S&P500 상승의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CNN Business 기사

#### **WSJ: The Best and Worst Airlines of 2023**

##### **WSJ가 선정한 작년 미 항공사 순위**

- 델타 항공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례 항공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3번째 연속 우승이자 지난 7년간 동안의 6번째 우승이다.
- 알래스카 항공은 2위를 기록했다. 저가 항공사인 엘리전트 항공은 2계단 상승해 3위를 기록했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4위로 올라섰다.
- 제트블루 항공은 3연속 꼴찌를 기록했으며, 프론티어 앤 스피릿 항공은 꼴찌를 면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시 도착, 항공편 취소, 지연, 타막(tarmac)지연, 충돌 사고 및 서비스를 기준으로 항공사 순위를 정했다.

WSJ 기사

## WSJ: Insurers Rake In Profits as Customers Pay Soaring Premiums 미 보험회사들, 주가와 수익 최고치 기록

- 주택과 자동차 보험비가 오르면서, 보험회사들의 주가와 이윤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부동산 및 사망 관련 보험사인 Travelers의 주가는 이번 주 초에 지난 가을 최저치보다 35% 상승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며, 이런 급등은 4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뒤 이뤄졌다.
- 보험사들은 지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보험사들의 수익을 올렸으며,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높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 전국적으로 보험비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Travelers의 경영진들은 올해 주택 보험 갱신의 경우, 보험료가 낮은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6월까지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10% 중반의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은 팬데믹 이후 장기간에 걸친 손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 [보고서]

## The Economist: The World is bracing for Donald Trump's possible return. 트럼프의 재선과 각국에 미칠 파급 전망

-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미 지난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 대선 후보 경쟁에서 헤일리를 상대로 승리했으며, 공화당 후보 론 디샌티스가 21일 대선을 포기했다. 그리고 오늘 23일, 트럼프가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승리로 발표가 났다.)
- 트럼프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와는 다를 것이다. 전에 비해 세계 정세가 더 복잡해졌으며, 자신의 재선 공약을 더 확고히 추구할 것이다. 특히 무역에서 전방위적인 1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의 변칙스러운 스타일과 성격은 전망을 예측하게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가 재선되면 각국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예측해 보는 것은 가능하며, 중요하다.

### 우방국들

- 우방국들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국방비에 적은 예산만을 지출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이에 독일은 트럼프 재선에 대비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과 액화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다.
- 한편,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이 대만 국방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재원을 낭비한다는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휴전을 촉구할 것이다.

- 트럼프가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저버리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만 방어를 실패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국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 방어 전략을 좌절시킬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방치하는 것은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

## 적대국들

- 적대국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위협을 가하거나, 파격적인 외교 행태를 보일 수 있다. 트럼프는 2019년 북한의 국경을 직접 넘어간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에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상호 적대적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 이란에 대해선 이란 정부에 대한 공격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중동 지역의 분쟁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
- 한편, 적대 국가와의 외교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편파성은 협상에 대한 기회가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상대국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암시한다.

## 이외의 국가들

- 트럼프의 재선은 무역에서부터 인권까지 모든 것에 대한 세계 규범을 훼손하고, 관련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약한 최빈국들의 내외부적 분쟁 가능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승리한다면, 그는 2025년 1월에 취임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세계 강대국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굳히는데 충분치 않으며, 트럼프 재선에 대비한 신속한 대안 마련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미국인, 신용카드 지출 늘지만 상환에 시간 더 걸려"

성인 절반, 저축 계좌에 500달러(67만원) 이하 보유  
루빈 전 재무, 재정적자 관련 "끔찍한 상황"... 증세 촉구

미국인들은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또한 연체율도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4대 은행은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